

天台의 四一과 元曉의 四法

李 起雲(동국대 강사)

I. 서 언

법화경에서 밝혀지는 본래 불타의 메시지는 一佛乘 사상과 제법실상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화경 일불승 제법실상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는 아무래도 天台大師(538~597)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天台 三大部에서는 법화경 일불승의 教義를 教門으로 정리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수행체계를 觀門으로 삼았다. 그래서 예로부터 천태대사의 해석을 법화경 해석의 표준으로 삼아왔다. 한편 우리나라의 元曉聖師(617~686)도 법화경의 핵심을 “一乘實相”이라고 정의하고, 그 대강을 『法華宗要』에서 펼쳐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두 분 일불승 실상관에는 한 가지 教法體系와 譬喩를 들고 있다. 天台大師는 法華經 一佛乘 實相論의 근본 경문인 十如是와 一大事因緣 및 開示悟入을 理一教一行一人의 四一로 해석하여, 이를 大白牛車 비유로 풀어내고 있다. 한편 元曉는 경문의 이 부분을 大意 宗旨 및 詮用에서 법화경 일승 실상의 법문을 所乘法 그 법을 실천해 들어가는 사람을 能乘人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實相法(所乘法)을 一乘理 一乘教 一乘因 一乘果의 四法으로 한 다음, 이를 四馬의 비유를 통해서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大白牛車와 四馬는 전혀 다른 듯 하지만, 이들은 모두 일불

승의 경지와 제법실상의 의의를 밝히고 이를 그 행 체계로 삼고 있는 비유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분의 비교 고찰은 법화경 일불승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모델이 된다.

여기서는 이들天台와 元曉의 一佛乘 實相論을 법화경 실상론의 추이에 따라 방편품 法說과 그 비유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천태의 경우는 『법화문구』를 비롯한天台三大部를 중심으로 살피고, 元曉는 『法華宗要』를 중심으로 고찰 한다. 한 분은天台學의 시조이고, 또 한 분은 해동 法華學의 사실상의 시초로서, 그들의 해석은 법화경 一佛乘 實相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되기 때문이다.

II.天台와 元曉의 一佛乘 實相觀

元曉와天台사상의 교류에 대해서는 『열반경중요』에서 원효는敎判에 대해서 직접 천태대사와 神人の 문답을 듣고, 천태대사에 대해서 칭찬과 비판의 상반된 평가를 보이고 있다.¹⁾

원효의 이와 같은 언급에도 불구하고 『大乘起信論疏』에서 『天台小止觀』을 인용한 부분이 보이며, 나아가 『金剛三昧經論疏』에도 그 흔적이 보인다 고 한다. 그리고 지금의 『법화중요』에서는 천태의 영향보다 吉藏의 『法華遊

1) 이무영 역, 『교정국역 열반경중요』 대성문화사, 1984, 245~246쪽. “천태대사는 선경과 지혜를 모두 통달한 분이어서 온 세상이 그를 중히 여기며 범부와 성인들도 그를 헤아려 알 수 없는 분이다. 그가 부처님의 뜻이 심원하기 한량없는데도 네 가지 종의 주장(四敎를 뜻함)으로써 경지를 척하러 하고, 또는 五時敎로 부처님의 뜻을 한정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소라으로써 바닷물을 길러 보려는 격이며 대롱으로써 하늘을 엿보려는 격임을 알겠다.”라 하고 있다. 그런데 앞뒤의 문맥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원효의 천태대사에 대한 眞意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意』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보여 천태보다는 길장의 영향에 무게를 두는 듯하다.²⁾

한편 원효와 천태의 회통사상과 교판사상에 대해서는 원효의 사상이 천태에 기초하였다고 보기도 한다. 원효의 『법화종요』와 천태의 『법화현의』를 비교하면 그 체계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도 보인다는 것이다. 『현의』에서는 釋名第一, 辨體第二, 明宗第三, 論用第四, 判教第五로 전개하고 있고, 『법화종요』에서는 一述大意 二辨經宗 三明詮用 四釋題名 五顯教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釋名은 釋題名에, 辨體는 辨經宗에, 明宗은 述大意에, 論用은 明詮用에, 顯教攝은 判教과 유사한 내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효의 일불승에 대한 能乘人과 所乘法[一乘理 一乘教 一乘果 一乘因]의 내용이 『법화현의』에도 유사한 표현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것이다.³⁾

본고는 여기서 더 나아가 보다 근원적인 법화경 일불승 실상관의 추이에 따라, 천태의 『법화문구』설 四一(理一教一行一人)과 대백우거비유를, 원효의 『법화종요』에 나타난 四法(一乘理 一乘教 一乘因 一乘果) 내지 五法(能乘人 포함)과 四馬의 비유를 중심으로 비교 검토하려는 것이다.

법화교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일불승 제법실상론은 불타의 본 뜻을 밝힌 일대사인연설, 제법의 실상을 밝힌 십여시설, 그리고 중생의 일불승 교화를 밝힌 개시오입의 제법실상설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두 분이 모두 이상의 세 초점에 맞추어 자신의 일불승 실상론을 전개하였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두 분 교학체계와 실천[教觀]론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공통점을 보인다는 것이다.

먼저 라집역 『묘법연화경』에서 설하고 있는 법설을 들어보기로 한다.

2) 福土慈稔, ‘元曉著述に於ける天台の影響について’ 『印度學 佛教學 研究』 第39권 제1호, 123~124쪽.

3) 李永子, “元曉의 天台會通思想研究” 『韓國天台思想의 展開』 민족사, 1992, 45~72쪽.

법화경에서는 부처의 知見은 無量하여 끝없는 미증유는 一切法을 다 成就하여 일체 중생을 갖가지 因緣과 譬喩로 인도한다고 한다. 부처가 성취한 이 법은 오직 부처님이라야만 諸法實相을 다 깨달아 궁구할 수 있다고 설한다. 그리고 제법실상은 이른바 如是相 如是性 如是體 如是力 如是作 如是因 如是緣 如是果 如是報 如是本末究竟等까지 모두 十如是라고 한다.⁴⁾ 이 경계는 부처님 지혜의 대상으로서 부처님만이 증득하신 진리이기 때문에, 보여 줄 수 없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며 聲聞 緣覺의 지식으로는 믿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경지라는 것이다. 그러면 佛法의 진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諸佛께서는 오직 一大事因緣 때문에 出現하신다는 사실이고, 모든 부처님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佛知見을 열어[開] 보여주[示] 깨달아[悟] 들어오게 하기 위함[入]이라는 것이다. 곧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불도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 一大事因緣으로 出現하신다는 것이요, 부처는 오직 一佛乘으로 중생을 위해 說法할 뿐 二乘이나 三乘道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佛法에 二乘道 三乘道가 있었던 것은 부처가 성문과 연각 등의 성품과 욕망에 따라 方便으로 三乘을 설하여 涅槃을 얻게 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곧 부처의 진의는 聲聞道나 緣覺道 菩薩道가 아닌 ‘부처의 경지로 들어감’ 곧 一佛乘道에 있음을 의미한다. 일불승은 여래의 지견(佛知見)을 얻는 것이요, 이는 곧 부처의 의도가 일불승에 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므로 “여래는 다만 일불승을 위한 까닭에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한다.”⁵⁾ 고 하였다.

이와 같이 법화경 일불승 실상관은 크게 세 가지에 초점이 모아진다. 첫째 부처의 지혜는 무량하여 諸法實相을 다 궁구해 아신다는 것이요, 둘째는

4) 十如是는 현존 범본 및 『정법화경』과는 차이가 있으나, 鳩摩羅什이 十如是로 번역한 것은 법화경 實相의 뜻을 잘 표현했다고 본다. 坂本幸南, 『法華經의 思想史的研究』(法華經의 成立と展開, 法華經研究Ⅲ), 平樂寺書店, 276쪽. 紀野一義, 『法華經의 探究』, 平樂寺書店, 102쪽 등.

5) “如來但爲一佛乘故 爲衆生說法” 『妙法蓮華經』上卷 제2 「방편품」, 85쪽.

부처는 일대사인연으로 출현하여 일체중생을 불도에 인도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부처는 개시오입으로 중생을 인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법화경의 일불승 실상관에 대해 천태와 원효는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대강을 살펴보기로 한다.

1.天台와 元曉의 법화경 일불승관

天台大師는 법화경 설법을 석가불의 설법이 이루어지는 迹門과 本地의 설법이 이루어지는 本門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迹門의 경우 法說周 譬說周 因緣說周의 三周說法을 통해 ‘방편을 열어 진실을 들어내는 開三顯一’ 법문으로 一佛乘觀을 해석한다. 그 一佛乘의 경지는 佛知見을 통하여 궁구하는 諸法實相으로, 방편품 十如是의 三轉讀을 통해 실상을 관하는 중도실상임을 밝혔다.⁶⁾ 十如是는 제법의 참 모습으로서, 제법은 곧 十法界의 實相을 가리킨다. 十法界란 六道와 四聖의 十界이다. 이 十法界의 五陰은 그 하나 하나에 각각 十如是를 갖추고 있고, 이 제법의 심여시는 十法界속에 서로 갖추어져 있어서 이를 전개하면, 三千世界가 이루어지고 이 세계는 한 생각 속에 모두 원융하게 구비되어 있다고 보아 ‘一念三千說’의 실천관법을 열었다.

곧 법화경 실상은 일심삼관(원융삼제)의 중도실상으로 파악되는 경지로서, 一念에서 卽空 卽假 卽中으로서 다같이 畢竟空이며 다같이 如來藏이고 다같이 實相임을 아는 것을 말한다.⁷⁾ 이를 圓頓止觀이라 하고, 이외에 漸次止觀과 不定止觀을 통해서도 일불승의 수행이 완성된다⁸⁾고 한다. 그리고

6) 『묘법연화경현의』 권제2상(대정장33, 693쪽 중)

7) “一念心起卽空卽假卽中者 若根若塵並是法界…當知一念卽空卽假卽中 並畢竟空 並如來藏 並實相” 『摩訶止觀』 卷第1下(大正藏46, 8쪽 하)

8) 『마하지관』 권제1상(대정장46, 1쪽 하) “三種止觀一漸次二不定三圓頓 皆是大乘 俱緣實相”

이들 십법계의 중생이 일불승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緣因佛性 了因佛性 正因佛性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元曉의 法華經 일불승 실상관은 『법화종요』에 잘 나타나 있다.⁹⁾

원효의 『법화종요』에서는 전체를 6문으로 나누어, 첫째 법화경의 큰 뜻을 大意로 밝히고[述大意], 둘째 경의 중지를 밝히며[辨經宗], 셋째 일불승에 들어가는 작용[能詮用]이며, 넷째 제목을 해석하고[釋題名], 다섯째 법화경 교의의 섭수됨을 밝히며[顯教攝], 여섯째 경문의 뜻을 풀이한다[消文義].¹⁰⁾

元曉는 『법화종요』에서 『묘법연화경』은 十方三世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신 큰 뜻이 들어 있고 9道 4生이 모두 한 길로 들어가는 큰 문[弘門]이라고 經의 大意를 밝힌다. 그러면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신 큰 뜻과 일

9) 원효의 법화 관계 저술은 『法華經宗要』 1권을 비롯하여 『法華經要略』 1권, 『法華略述』 1권, 『法華經方便品料揀』 1권이 있었으나, 『法華經宗要』 만이 전하고 있다. 법화경에 대한 4부에 저술은 원효의 저술경향으로 보더라도, 법화경에 그의 관심이 결코 다른 어떤 경전에 비해 뒤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원효의 저술 중에는 이른바 宗要라는 형식의 저술이 많이 보인다. 중요한 이외에도 『대해도경종요』 『화엄경종요』 『무량수경종요』 『열반경종요』 『미륵상생경종요』 『유마경종요』 『능가경종요』 『범망경종요』 『광백론종요』 『삼론종요』 『중관론종요』 『장진론종요』 『성유식론종요』 『보성론종요』 『대승기신론종요』 『무량의경종요』 등 16부의 宗要가 더 있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 불교학 전반에 걸쳐 있어서, 宗要는 그가 가장 좋아했던 저술형식인 것으로 보인다.

10) 이 중에 제6장은 消門義라 하여 여기서 경문에 대한 주석이 배제되었을 것이지만, 다른 중요라는 형식의 저술과 마찬가지로 어렵게도 그 내용이 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宗要는 疏라는 형식적인 註釋의 틀을 탈피하여 그 經論의 주요 내용을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논술한 일종의 論究書이기 때문일 것이다. 『법화종요』는 법화경문에 대한 상세한 주석을 위한 저술이 아니므로 실제로 이 부분은 지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김종인, 법화종요에 나타난 원효의 법화경 이해, 『淨土學 研究』 제6집(2003), 362쪽.) 『법화종요』의 구조는 『涅槃經宗要』의 2문이나 『無量壽經宗要』의 4문보다는 자세하고, 『彌勒相生經宗要』 10門보다는 작으며, 『大慧度經宗要』와 같은 6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 중생이 들어가는 하나의 큰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一乘實相라 한다(제2 宗旨章). 곧 이승도 삼승도가 아닌 일불승의 진실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원효는 이러한 일승실상의 경지를 能乘人과 所乘法의 둘로 되어 있다고 한다. 이는 일불승인이 타고 가는 일불승법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일불승인이란 제불이 출세하여 일불승 실상으로 인도할 중생들이요, 소송법이란 이 중생들을 인도해 들어갈 道法의 체계 곧 일승법을 뜻한다. 그러면 삼세 제불은 어떻게 일불승으로 인도하고, 일체중생은 어떻게 이 큰 길에 들어가는가. 원효는 삼승방편의 문을 열어서[開權] 일승진실상을 보여주어[示實] 가능하다고 한다. 이처럼 원효도 천태의 일불승 실상관의 추이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다.

2.天台의 四一과 元曉의 四法(五法)

법화경 설법은 諸佛이 출세한 眞意와, 전 佛法의 眞實을 밝히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법화경 설법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一佛乘 實相論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 법문은 『묘법연화경』 방편품 법설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 天台는 四一로 해석하고 元曉는 이를 四法(五法)¹¹⁾으로 해석하고 있다. 天台와 元曉는 이를 어떻게 자신의 實相觀인 四一과 四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밝혀보기로 한다.

11) 천태대사는 『법화문구』에서 법화경 五佛章의 내용을 理一教一行一人의 사일로 해석하고 있고 원효는 『법화종요』에서 能乘人과 所乘法으로 나눈 다음, 소송법을 一乘理 一乘教 一乘因 一乘果로 체계화했는데, 앞의 능승인을 같은 형식으로 一乘人으로 보면 오법체계라 할 수 있다. 四法의 용어는 金俊煥, “元曉의 一乘思想”(『研究論執』15, 東大大學院, 1985)에서 “四法의 相應”으로 사용한 바 있다. 五法은 李箕永, “法華宗要에 나타난 法華經觀”(『한국천태사상연구』 동대출판사, 87 쪽)에서 “다섯 가지 일승 실상 이론”으로 나눈 바가 있다.

1) 천태대사의 四一

천태대사는 이러한 법화경에서 설하는 일불승 실상을 나타낸 부분에 대해, 『법화문구』에서 『법화현의』 迹門 十妙를 배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① “이 법이 사교와 분별로 능히 이해할 바가 아니다.”부터는 理一을 나타낸다. ② “오직 부처님만이 아실 수 있기 때문이다.”는 智一을 나타낸다. ③ “오직 一大事因緣으로…”는 조금 분별해야 한다. 一은 곧 진리요, 大는 곧 지혜, 事는 곧 행이니, 진리는 지혜를 일으키고 지혜는 행을 인도한다. 이 뜻을 따르면 곧 일대사는 行一을 나타낸다. ④ “(불)지견”이란 지혜로는 진리를 알고(知), 눈으로는 진리의 법을 보며(見), 진리의 법은 무위로 곧 분별이 없으나 무위로써 차별이 있게 된다. 이 知見에 입각해서 (불)지견의 開示悟入을 논하고 간략한 것으로 자세히 헤아리면 곧 41위가 있으니 位一을 나타낸다. ⑤ 또 四句로 맺는 글을 취하여 하나를 나타내면 (일대사의) 一은 곧 법신을 大는 곧 반야 事는 곧 해탈이니, 이는 비밀장으로 곧 三法一임을 나타낸다. ⑥ “세상에 출현함”이란 感應一을 나타내고, ⑦ “다만 보살을 교화하신다.”란 眷屬一을 나타내고, ⑧ “여러 가지 하시는 일”이란 神通一을 나타낸다. ⑨ “오직 부처님의 지견을 중생에게 보여 깨닫게 하려 함이다.”란 利益一을 나타내고, ⑩ “다만 일불승으로 중생을 위해 설법하신다.”란 說法一을 나타낸다.¹²⁾

天台는 법화경의 일불승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법설인 일대사인연설과 불지견의 개시오입이 모두 開權顯實의 일불승에 들어가는 법으로, 이는 『법화현의』 불가사의한 실상의 이치인 십묘(境妙·智妙·行妙·位妙·三法妙·感應妙·神通妙·說法妙·眷屬妙·利益妙)¹³⁾와 다름 아니라고 하고 있다. 곧 개권현실이 이루어지면, 무량한 법이 하나이고 一色 一香이 中道實相 아님이 없듯이, 10법이 오직 하나인 일불승 실상의 경지(理一·智一·行

12) 『법화문구』 권4상(대정장34, 51쪽 상)

13) 『법화현의』 권제2상(대정장33, 697쪽 하)

一·位一·三法一·感應一·眷屬一·神通一·利益一·說法一)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이를 간략히 하면 넷이 하나[四一]인 도리로 볼 수 있다고 한다.¹⁴⁾ 四一이란 ① 진리가 하나이고[理一], ② 행이 하나이며[行一], ③ 사람이 하나이고[人一], ④ 가르침이 하나[教一]라 한다. 일불승은 부처님의 智見을 깨닫게 하는데 있으므로 모든 가르침과 법의 진실은 실상의 진리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며, 많은 수행이 있으나 진실에 있어서는 성불을 위한 수행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고, 삼승 내지 일체승의 사람들이 있으나 진실에 있어서는 오직 불도에 들어가는 보살인 하나뿐이라는 것이며, 이승 삼승의 온갖 교설이 있으나 일불승으로 설법하니 가르침이 하나뿐이라는 것이다. 이를 곧 일불승의 진리, 일불승의 행, 일불승의 사람, 일불승의 가르침이라 하는 것이다.

특히 불지건의 ‘開·示·悟·入’을 理一로 보고, 이를 다시 四位 四智 四門 觀心에 입각하여 풀이한다. 이 중에 불지건의 개시오입을 밝히는 理一에 대해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주어 청정함을 얻게 하고자 함[開佛知見]은 계위로는 十住에서 무명을 깨고 여래장을 열어 실상의 도리를 보는 것이다. 지혜로는 道慧이니 도의 實性을 보아 그 중에 부처님 지견을 열기 때문이다. 원교 四門으로는 空門의 一空一切空이다. 觀心으로는 공·가·중이 청정함을 비추어 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② 중생에게 지견을 보여주하고자 함[示佛知見]은 부처님의 성품을 열어주어 미혹의 장애가 없어지고 지견의 본체가 드러나 보이니 十行的 계위이다. 지혜로는 道種慧이고, 四門으로는 一有一切有, 관심으로는 공·가·중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것이다. ③ 지견을 깨닫게 하고자 함[悟佛知見]은 諸法實相을 깨닫게 되니 事理가 원융하여 ‘悟’

14) “今釋顯實 無量法皆一也 如玄義中十妙 則是十種一也 若和舊解 且作四一” 『법화문구』 4상(대정장34, 50쪽 하) 十妙와 十妙一과의 관계에서, 일불승 불지건의 대상은 진리의 모습으로 境妙를 理一로 보았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이다.

라 하며 十廻向이다. 지혜로는 一切智, 四門으로는 一切亦空亦有, 관심으로는 공·가·중의 마음이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인 것이다. ④ 지견도에 들여놓고자 함[入佛知見]은 불타의 지혜를 실제로 증득하여 들어가게 함이니 事理가 원융자재하여 일체지를 얻는 十地이다. 지혜로는 一切種智, 四門의 一切非空非有이며, 一心三觀이면서 차례로 개시오입을 구별하여 아는 것이라 한다.

천태는 이와 같이 불지견을 理一로 밝히고, 이어 범화경 경문을 教一行一人一을 차례로 밝히고 있다. 『법화문구』에서는 방편품 법설을 五佛章(諸佛章 過去佛章 現在佛章 未來佛章 釋迦佛章)으로 보고, 이들 開權顯實의 一佛乘 實相法門을 모두 이 四一에 의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천태의 일불승관은 四一의 一佛乘觀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천태의 四一은 이전의 범화경 주석가들의 일불승론을 다시 정비한 것이다.

“경문에 의한다는 것은 경문에서 佛知見이라 불렀으니 이제 지견의 대상을 취한다. 보는 대상은 곧 진리이고 아는 대상은 곧 현상경계이니, 현상 경계의 진리는 곧 實相의 진리이다. 그러므로 이를 진리가 하나[理一]라고 한다. 또 옛 사람들이 因이 하나[因一]라고 했는데, 이제 나는 이것을 행이 하나[行一]라고 말한다. 因은 말이 한 쪽에 치우쳐 뜻이 통하지 않는데 行一은 因果를 다 포함하고 있으므로 행이 하나[行一]라고 한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人一]와 가르침이 하나[教一]는 저들과 같다.”¹⁵⁾

顯實의 제법실상을 나타낸 구절에 대해서 천태대사뿐만 아니라, 고래의 대부분의 법화 주석가들도 四一의 뜻으로 해석해 왔다. 그런데 法雲을 비롯한 옛 법화가와 천태대사의 四一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光宅은 教一 理一

15) 『법화문구』 4권상(대장장34, 51쪽 상) “依文者 文稱佛知見 今取所知見, 所見即諦所知即境 境諦即實相之理 故名理一. 舊云因一 今云行一 因語單義別 行一, 語通收得因果 故言行一. 人一教一與彼同.

機一人의 넷을 주장했고¹⁶⁾, 吉藏은 因一果一人一教¹⁷⁾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천태대사는 果一은 일불승 불지견의 대상으로, 진리의 모습 곧 실상의 도리인 理一에 배대했다. 또 因一果一의 둘은 포괄적 의미의 行一로 하였으며, 教一人一은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 곧 천태대사는 教一行一人一理一의 四一로 一佛乘法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¹⁸⁾

2) 원효의 四法(五法)

법화교학의 실상론 전개에 따른 원효의 일불승 실상론의 대강은 『법화종요』 제1 대의장에서 크게 세 가지로 밝힌다. ① 이 경은 시방 삼세제불이 출현하신 큰 뜻을 밝힌다고 하여, 제불은 일체중생을 불도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 일대사인연으로 출현하셨음을 밝힌다는 것. ② 이 경은 9道[지옥·아귀·축생·아수라·인·천·성문·연각·보살] 四生[胎·卵·濕·化]의 일체 중생이 다 一道로 들어가는 넓은 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법화경이 三乘 내지 일체 중생을 佛道로 인도하는 일불승경임을 밝히는 것. ③ 경문의 교묘한 뜻과 이치에 대해서는 첫째, 극에 이르지 않음이 없고 말씀이 진리를 잘 펴서 법을 드러내지 않음이 없다. 둘째, 삼승의 방편을 잘 열어 이승의 진실을 잘 보이는 경이요 셋째, 이승이나 삼승을 위한 것이 아닌 오직 일불승을 위한 경이므로 부처는 一大事因緣으로 출현하여 開示悟入하여 佛知見을 증득하게 한다는 것이다.¹⁹⁾ 결국 이 경이 일불승 제법실상을 설하는 경임을 밝히고 있는 셈이다.

구체적인 일불승 중지에 대해서(제 2장) 이 경은 총괄적으로 보면 광대하고 깊은 一乘 實相을 담고 있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이를 분별해 보면, 두

16) 『法華經義記』 권제2(대정장33, 593쪽 상).

17) 『法華玄論』 권제1(대정장34, 369쪽 상).

18) 任禹植, 「法華宗要における一乘說」, 『印度學佛敎學研究』 31-2호, 162쪽.

19) 『한불전』 제1책, 487쪽 하.

측면 곧 일승 실상의 주체[能乘人]와 객체[所乘法]²⁰⁾가 있다고 명료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일승실상의 주체란 일불승에 들어가는 사람을 뜻하고, 일승실상의 객체란 일승의 실상에 들어가는 法 내지 일승 실상의 妙法을 의미한다.²¹⁾

일승법에 들어가는 이른바 일불승인에 대해서는 일승실상의 주체[能乘人]라 표현하고 있다. 앞의 대의장에서는 9道 4生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이를 더욱 세밀히 분석하여 실제 불도를 수행하는 三乘行人과 四種聲聞²²⁾ 그리고 삼계 4생을 들고 있다. 원효는 이들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어 장차 佛位를 잇기 때문에 다 一佛乘人이라고 한다. 그리고 심지어 無情有情도 作佛한다고 밝히고 있다. 원효는 현상적으로는 일체 중생이 9道 4生 내지 삼승행인 四種聲聞과 三界 4生으로 존재하지만, 이들은 佛性を 가지고 있어 필연적으로 일불승에 들어가 佛位에 드는 주체[能乘人]임을 확실히 인식한 일불승관이라 할 수 있다. 四法의 형식으로 표현하면, 一乘人이 되는 셈이다.²³⁾

이어서 일승인이 들어가는 실상의 묘법을 一乘理 一乘教 一乘因 一乘果의 넷으로 설명한다.

20) 能乘人 所乘法의 분류방식은 吉藏의 『法華義疏』 권제6(대정장34, 539쪽 하) “前明所乘法 佛所悅可明能乘人”와 620쪽 상. “此經明一乘亦爾 一者諸佛所乘 二菩薩所乘 自從經初至神力品明佛所乘之法及能乘之人…”에서 보인다. 한편 湛然的 『止觀輔行傳弘決』에도 “能乘人及能證教”이란 표현이 보인다.

21) 『법화종요』 자세한 교리체계에 대해서는 이병욱, “元曉 法華宗要의 教理體系 研究”, 『韓國佛敎學』 1997, 참조.

22) 원효는 三乘行人이란 삼계 내에서 수행하는 聲聞乘 緣覺乘 菩薩乘人이고, 四種聲聞은 『법화론』과 『유가사지론』에도 설해진 네 부류 성문이라 한다. 곧 오로지 소승법을 닦아 성문으로만 나아가는 決定聲聞과 법화경에도 설해진 增上慢聲聞, 본시 보살에서 퇴보한 退菩提聲聞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응화한 應化聲聞이라 한다.

23) 제3장 能證用에서는 “일(승)인을 세우므로 곧 삼(승)인을 파한다[立一人故 則波三人]”(『한불전』 제1492쪽 중)라 하여, “一乘人”을 세우고 있어 사실상 五法을 말하고 있다.

① 일승의 진리[一乘理]란 시방 삼세 일불승 실상의 진리세계를 말한다. 일승의 진리에서는 一法界이고 法身이며 如來藏으로서 상승 내지 일체 중생에 차별이 없다는 말이다. 곧 진리성에서는 법계의 성품 법신의 성품 여래장의 성품이 차별이 없음을 말한다. 그렇다면 세상에 엄존하는 9법계 삼승 중생의 차별은 무엇인가. 원효는 “부처님이 삼승을 설한 것은 地의 차별을 보인 것이지 乘의 차별이 아니고, 사람의 차별을 설할 뿐이지 乘의 차별이 아니다.”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性欲이 달라서 경지가 차별이 있으니 그에 맞는 성문법 연각법이 주어진 것이요, 연각승 성문승 등의 고정된 승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곧 일불승의 진리[一乘理]에서는 성문 연각 보살도 모두 평등한 법계와 여래장 법신을 가지고 있어서, 모두 일승 실상의 안에 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법을 일승의 본성이라 하고 일승의 理法이라고 했다.²⁴⁾

② 일승의 교법[一乘教]란 제불의 일체 교설은 모두 일체지(성불)에 이르게 하는 교의라는 것이다. 이는 모든 불설이 중생을 위하여 갖가지 방편과 비유로 설해졌지만, 모두 한결같이 불도에 들게 하는 법문 곧 일불승 교의라는 설명이다.

③ 일승의 인[一乘因]이란 일불승의 과를 이루는 원인을 말한다. 여기에는 둘로 나누어 본성으로서 성불의 성품인 불성자리를 性因이라 하고, 행위로서 불도에 들게 하는 성품을 들어 作因이라 한다. 이 중에 性因은 일체 중생이 가지고 있는 성불의 당체로서 불성이니 천태의 삼인불성중 正因佛性に 배대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작인은 일체 善根이 장차 보리를 이루는 불성이 된다는 것이다. 평소의 조그마한 선행 하나하나도 최상의 보리를 이룬다고 한다. 이는 천태대사의 了因佛性 緣因佛性和 같은 설명이라 할 수 있다.

④ 일승의 과[一乘果]란 불도를 이룬 果佛에는 本有果와 始起果로 나누

24) 김영길, 원효의 『법화종요』로 본 一乘 통일, 『원효학 연구』 제3집(1998), 60쪽.

있다. 本有果는 法身보리 곧 범신불을 말한다. 시기과는 보리행을 닦아서 이루어진 과체로서 보신불과 응신불을 가리킨다.

<표 1> 천태의 사일과 원효의 사법의 비교

天台의 四一	元曉의 四法(五法)	
理一	所乘法	一乘理
教一		一乘教
行一		一乘因
		一乘果
人一	能乘人(一乘人)	

이상의 내용을 천태대사와 비교해 보면, 같은 일불승 실상을 사일과 사법(오법)으로 나타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비교해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원효는 일승의 이치에서 一法界의 본성으로 범신 여래장을 들고 있다. 천태는 일불승의 이치로 불지견의 개시오입을 밝히고 있는데, 뒤의 대력백우 거 비유에서 이일의 본체를 원효와 같은 법계 여래장으로 설한다.

둘째, 천태의 교일과 원효의 일승교는 모두 일불승에 이르게 하는 교법이 모두 일불승교임을 밝히고 있다.

셋째, 천태의 행일은 부처님 一大事の 행이 모두 일체 중생을 성불로 이끄는 일불승행이라 하고 그 원인을 三因佛性으로 보고 있다. 이에 비해, 원효는 이를 一乘因 一乘果로 나누고 일승인에서 일체 중생이 가지고 있는 불성으로서 삼신불의 인을 성인이라 하고, 성인 범부 외도 일체 道分을 보리를 가져올 작인으로 보았다. 그리고 일승과에 대해서는 삼신불의 보리를 本有果 보신불과 응신불의 보리를 始起果로 본 것이다. 큰 체계로 볼 때 천태의 行一은 원효의 人乘因과 一乘果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효가

일승의 행에 대해 인과로 나누어 세밀한 고찰을 한 것으로 光宅 吉藏 등과 같지만 그 내용은 이들보다 체계적인 해석이라 여겨진다.

넷째, 천태의 人一은 원효의 能乘人에 비교된다. 천태는 일승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보살임을 들어 일체중생은 모두 보살도를 통해 불도에 든다고 한다. 이에 대해 원효는 “일승을 탈 수 있는 사람은 다 佛子이고 다 菩薩”²⁵⁾이라 하면서 三乘行人 四種聲聞 四生衆生을 들어 밝히고 있다.

다섯째, 불지견의 개·시·오·입에 대해 천태는 理一이라 하고, 開三顯一의 체계에서 구체적인 일불승의 행체계에 의한 계위로 나타냈다. 이에 비해 원효는 불지견의 開·示·開示合明으로 나누고 일불승 실상의 논리체계와 상대하여 四法の 통일된 작용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두 분의 사일과 사법(오법)은 일불승 실상에 대한 핵심을 잘 밝히면서 많은 상통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그 비유에서는 이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천태의 大白牛車 비유의 내용과 원효 四馬의 비유를 통해 비교해 보기로 한다.²⁶⁾

III. 대백우거 해석과 四馬의 비유

1.天台의 一佛乘 大白牛車

천태대사는 『법화문구』에서 범화경의 일불승 제법실상을 四一인 도리로

25) 『法華宗要』 第二辨經宗조(『한불전』 제1책, 488쪽 상).

26) 사실 천태의 대백우거 비유는 범화경설의 法華七喩의 첫 번째인 火宅喩의 내용으로, 원효의 사마와 직접 비교하는 것에 무리가 없지 않다. 그런데 천태의 대백우거 비유는天台教觀의 핵심을 이루는 비유로서, 『법화문구』의 종합적인 해석과 『마하지관』 행체계 그리고 『법화현의』 천태 교법에 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줄고, “天台의 法華經 大白牛車 一佛乘 思想의 수용과 전개”, 『천태학연구』 제6집 참조) 법문에 대한 비유로서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다.

해석하고, 이를 大白牛車 비유로 자세히 설명한다. 이러한 四一의 도리는 感應道交로 가능해지며, 중생들이 불지견에 感할 수 있는 것은 일체 중생들의 가지고 있는(여래장) 三因佛性²⁷⁾에 근거한다.

법화경 범문은 開三顯一에 의하여 佛知見의 開·示·悟·入에 의해 一佛乘을 설하여 비유품 이후부터 法華七喻로 설하고 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비유가 火宅三車이다. 화택삼거란 삼계의 화택에서 聲聞에게는 羊車를 주고, 緣覺에게는 鹿車를 주며, 菩薩에게는 牛車를 주어 삼계에서 나오게 한 후, 두려움 없는 안온한 곳에 이르면 부처님께서 大白牛車의 수레를 모든 아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주었다는 내용이다.

천태대사는 이 대백우거의 비유가 방편품에서 오직 불도에 들어가게 하는 일불승 무상도의 취지²⁸⁾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대백우거의 비유를 크게 넷으로 나누어 이 비유의 근본이 되는 방편품의 범설 밝혀²⁹⁾ 일불승 범설을 설명하는 四一의 취지를 만족하는 교설임을 말해주고 있다.³⁰⁾

경에서 白牛가 끄는 큰 수레를 大白牛車라 하고, 그 수레를 끄는 소가 가장 센 힘을 가지고 있어 大力白牛車라고도 한다. 천태대사는 대백우거 비유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수레는 여래의 知見을 비유하며, 백우는 無漏의 般若지혜로 사제 인연 육바라밀 등 일체 萬行을 인도하여 薩婆若에 이르게 함을 비유하며, 僕從은 方便智의 作用으로 곧 方便波羅蜜行이라는 것이다.³¹⁾

구체적으로 천태대사는 법화경에서 설하는 제법실상의 佛界를 다음과 같

27) 『법화문구』 제4하(대정장34, 57하~58쪽 상) “初一行半頌開三 後五行頌顯一 度脫諸衆生者一行頌人……如此三性 名爲一乘也”

28) 『법화문구』 제7하(대정장34, 101쪽 하). “此經卽與火宅賜一大車 方便中但說無上道意同也”

29) 『법화문구』 제4하(대정장34, 59쪽 중), 동 제5하 69쪽 하. 이하의 네 비유도 마찬가지.

30) 줄고, “天台의 法華經 大白牛車 一佛乘 思想의 수용과 전개”, 259~260쪽 참조

31) 智顓, 『法華文句』 제5하(대정장34, 72쪽 상~중).

이 대백우거 비유로 설명한다.

“부처님 법계는 如是相이라고 하니 온갖 선행의 緣因을 가리킨다. 이는 ‘여러 가지 보배로 장식했다’라 하신 것이 이 뜻이다. 또 불법계는 如是性이라 하니 지혜의 了因을 가리키고, ‘대백우가 있어’가 이 뜻이다. 불계는 如是體라 하니 실상의 正因을 가리키고, ‘그 수레가 높고 넓다’가 이 뜻이다. 불법계는 如是力이라 하니 보리도심 자비 선근력을 가리키며, ‘또 그 위에 헨개를 뾰다’가 이 뜻이다. 불법계는 如是作이라 하시니 임운무공을 가리키고, ‘그 빠르기가 바람 같다’가 이 뜻이다. 불법계는 如是因이니 사십일위를 가리키고, ‘보배의 수레를 타고 사방에 노닌다’가 이 뜻이다. 불계는 如是緣이니 온갖 조도의 보리법을 가리키고, ‘많은 하인이 시위한다’가 이 뜻이다. 불계는 如是果이니 묘각의 원만한 인을 가리키고, ‘바로 도랑에 이른다’가 이 뜻이다. 불계는 如是報니 대열반을 가리키고, ‘무량한 무루의 청정과보를 얻는다’가 이 뜻이다. 불교는 本末이니 부처님의 모습과 과보를 가리키고, 자행의 방편을 뜻한다. 불계는 究竟等이니 실상을 가리키고, 자행의 진실을 뜻한다”³²⁾

천대대사는 법화경에서 설하고 있는 부처님 세계[佛界]에서 드러나는 모습인 제법실상을 십여시로 나타내고 있는데, 10법계 실상의 경지가 곧 대백우거 비유의 본 뜻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법화현의』에서도 제불의 일대사인연은 일승의 제법실상에 들어가고, 제법실상을 궁구해 이는 것을 묘각위에, 개시오입을 40위에, 곧바로 도랑에 이름을 묘각에 배대한다.³³⁾ 그리고 곧 대거의 수레 모습은 실상이 여래장임을

32) 『法華文句』 제3하(43쪽상~중) “約佛法界釋者…名如是相 指萬善緣因 故下文云衆寶莊校卽其義也…名如是性 指智慧了因 故下文云有大白牛也…名如是體 指實相正因 故下文云其車高廣也…名如是力 指菩提道心慈善根力等 故下文云 又於其上張設幢蓋也…名如是作 指任運無功用道 故下文云其疾如風也…名如是因 指四十一位 故下文乘是寶乘遊於四方也…名如是緣 指一切助菩提道 故下文又多僕從而侍衛之…而名如是果 指妙覺朗然圓因所剋 故下文直至道場也…名如是報 指大般涅槃 故下文得無量無漏清淨之果報也…而言本末 本卽佛相末卽佛報是自行權也…言究竟等 指於實相 故標章云實相也 是自行之實也”

가리키고, 그 백우의 모습과 그 시종들이 따르는 것은 실상이 제일의공임을 가리킨다고 한다고³⁴⁾ 설명한다.

『마하지관』에서는 십승관법을 대백우거의 비유로 설명하고 구체적인 수행체계를 자세히 밝히고 있다.³⁵⁾

수행자는 모두 一乘임을 깨달아 알고 이 십승관법을 닦는데, 세간에서 이 십법이 성취되면 동륜위에 들어가 무생법인을 증득하고, 대거를 타고 곧바로 도량에 이르러 법성을 깨닫고 불법을 구족한다고 하여 일승의 원돈관임을 보여준다.³⁶⁾ 이렇듯 『마하지관』의 십승관법은 대백우거의 비유로 그 수행체계를 나타내고 있어서, 대백우거의 행체계는 일불승 원돈관법의 중요한 수행법임을 알 수 있다.

2. 원효의 四馬 비유

원효는 일승 실상법을 一乘理 一乘教 一乘因 一乘果라 했다. 이는 곧 일승법은 진리가 하나이고, 教가 하나이고, 因이 하나이고, 果가 하나라는 것이다. 이들 사법은 일불승의 네 모습이면서 일불승으로 들어가게 하는 법임(所乘法)을 위에서 보았는데, 이 넷이 바로 곧 네 필의 말과 같다고 四馬³⁷⁾

33) 『법화현의』 제5상(대정장33, 735쪽 중).

34) 『법화현의』 제5하(대정장33, 743쪽 상~중).

35) 『마하지관』 제7하(대정장46, 100쪽 중).

36) 『마하지관』 제7하(대정장46, 101쪽 중) “其疾如風證眞實眼 乘一大車直至道場”. 同 제8권상, 104쪽 하) “得一大車高廣僕從而侍衛之 乘是寶乘直至道場”. 동 제8권하(111쪽 하) “十法成就疾入法流 是名病患境修大乘觀獲無生忍得一大車 例前可知”. 동 제10권하(140쪽 하) “乘一大車遊於四方 直至道場成得正覺 餘如上說”.

37) 四馬의 비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있다. 『묘법연화경』 서품에서는 백호 광명속의 보살행을 보이는 중에, “駟馬寶車 欄楯華蓋…(어떤 보살은 네 마리 말이 끄는 보배 수레를 난순화개로 장엄하여 보시하며…)”(대정장9, 3쪽 상)라는 구절이 보인다. 뒤의 비유품에서는 이를 대력배우거로 비유에 사용했다. 원효가 이를 보고 자신의 사마비유로 이끌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 窺基(632~682)의 『묘법연화경현찬』 권

로 비유하고 있다.

“理教因果의 사법이 서로 호응하여 다같이 서로 응하여 다같이 한 사람을 운용하여 薩婆若에 이르게 하니, 그러므로 이 넷을 일승법이라 한다. 마치 네 필의 말이 서로 상응하여 다같이 한 수레를 옮겨가므로 네 필의 말을 설하여 일승이라 한다.” 마땅히 알라 일승법의 도리도 또한 그러하다³⁸⁾

원효가 四馬의 비유로 일승법을 밝힌 것은³⁹⁾, 一乘理 一乘教 一乘因 一乘果가 일불승 실상법의 네 측면이면서 일불승에 도달하는 4法체계로, 마치 하나의 마차를 끌고 감에 있어 네 마리의 말이 일사불란하게 운용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효는 이 四法의 일불승은 마치 네 마리의 말이 서로 힘을 합하여 한 수레를 끌고 가는 것과 같다고 하며,⁴⁰⁾ 그 상호 相應性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일불승 진실상 이란 四法 중에 一乘理 一乘教 一乘因의 三法이

제2말(대정장33, 685쪽 중~하)에 “古人四馬一乘逐也 可以馳逐”라 하여 있다. 한편 湛然(711~782), 『止觀輔行傳弘決』(대정장46, 212쪽 상)에서는 『잡아함경』의 四種馬(채찍을 보고 놀라 달리는 말, 채찍이 털에 닿자 달리는 말, 살에 닿자 달리는 말, 뼈까지 울릴 때 달리는 말)의 넷을 들고, 이중 첫째의 快馬는 圓機이며 나머지는 삼교의 근기라 한다. 지금 원효의 사마는 이들과 내용과 차이가 있을 뿐더러, 연대도 원효보다 조금 후대의 인물들이어서 이들로부터 연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8) 『한국불교전서』 제1책, 490쪽 상 “理教因果如是四法 更互相應共運一人到薩婆若故說此四名一乘法。猶如四馬 更互相應共作一運故說四馬名爲一乘 當知此中道理亦爾”.

39) 四馬 비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일찍이 先學의 중요한 연구가 있었다. 金英吉, “원효의 『法華宗要』로 본 一乘의 통일”(『元曉學 研究』 제3집 원효학회 1998)에서는 “네 말수레(四馬一乘)이라 하고, 이러한 표현의 틀 속에서 무엇인가 담고 있다” 라 하면서, 네 마리 말이 하나의 실상을 실은 한 수레를 이끌 듯이 사법의 해법은 원효의 범화경관에 뿌리하고 있다고 논술하고 있다.

40) 金俊熙, “元曉의 一乘思想”, 전게서, 123쪽에서는 사법의 共運은 四馬가 힘을 합하여 이끌고 가는 것과 같이 一乘이라 하고, 이를 中道의 원리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로 상응하여 중생을 운반하여 살바야라고 하는 究竟의 果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데, 一乘果는 이미 구경처이므로 나머지 삼법과 어떻게 호응하는가라는 의문이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원효는 三法과 一乘果 사이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들어 ‘사법이 서로 상응한다’고 한다.

첫째, 현재 미래세 佛果의 힘이 중생을 도와 주어 善心을 내도록 하므로써 점차 불과에 이르게 한다.

둘째, 과보불의 응화신으로 나타나 중생을 교화하여 증진하게 한다.

셋째, 아녹보리를 얻을 것을 수기하여 더욱 정진하므로 當果를 얻게 한다.

넷째, 일체종지와 온갖 덕을 갖추고 온갖 교법을 설하여 일체 중생이 발심하여 40心을 거쳐 모두 果乘을 타도록 한다.

일승법의 네 바퀴가 서로 상응하여 일체 중생을 일승으로 성취시킴에 있어, 加被力과 感應과 授記와 一切種智의 넷에 의한 네 말의 운행설로 일승법의 실현을 구체화 한 것이다.⁴¹⁾ 곧 일불승 실상의 四法은 서로 호응함이 四馬의 운행과 같아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불도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원효는 그 예를 『열반경』의 善心增長 설명과 『본승경』의 摩頂說法과 이경의 6처 授記과 이경의 一切種智 넷을 인용하여, 일승인이 一乘教를 통해 一乘因이 이루어져서 一乘理의 一乘果에 이름을 밝히고 있다. 곧 범화경 일승법(四法)의 작용이 四馬의 운행의 궁극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사법의 운용 곧 四馬의 운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원효는 이를 開와 示와 開示合明으로 설명하여 사법을 열어 보여주는 사마의 수승한 작용으로 본다.

먼저 開는 방편의 三乘教를 열고, 示는 진실의 구경일승을 보여준다고 한다. 여기서 삼승교를 여는[開] 의의에 대해서 넷을 들고 있다. 첫째 佛의 방편지에서 설한 方便教이고, 둘째 근기에 맞추어 설한 삼승교이며, 셋째 일승 正教를 위한 前方便이요, 넷째 一乘理에서 설한 방편이었다고 한다. 따

41) 金英吉, 전계서, 67쪽.

라서 이는 앞의 四法에 비추어 본다면 방편을 연 것은 一乘果 一乘因 一乘教 一乘理의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연 것)임을 알 수 있다.⁴²⁾

보임[示]에 있어서는 삼승의 방편을 열어 진실상을 보인다고 하고, 能乘人과 所乘의 法相을 구경의 진실상이라 보고 있어, 열어 드러나는 구극이 一乘人과 四法이라 한다.

開示合明에서는 앞의 開 示를 합한 작용으로, 네 가지 뜻이 있어서 四法의 작용이라고 한다.

“開示한다는 데에는 네 가지 뜻이 있다. 첫째 전의 삼승을 사용하여 일승을 삼으니[用三爲一], 전의 삼승교가 곧 一乘教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 삼승으로 일승에 다다름이니[將三致一], 삼승 사람을 가지고 一乘果에 함께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셋째 삼승을 회통하여 일승에 돌아감이니[會三歸一], 옛적에 설한 삼승의 인과를 회통하여 본래의 一乘理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넷째 삼승을 파하고 일승을 세움이니[破三入一], 저들이 집착하는 삼승의 다른 취지를 파하고 일승의 이치에 함께 돌아가는 뜻을 세우기 때문이다.”⁴³⁾

곧 ① 전의 삼승교를 사용하여 일승을 위함이니 이는 一乘教를 위한 것이라 하고, ② 삼승으로 일승에 이룸이니 一乘果를 위한 것이며, ③ 삼승을 모아 일승에 돌아감이니 一乘理를 위한 것이며, ④ 삼승을 파하여 일승을 세움이니 이는 一乘因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開·示·開示合明의 모습은 삼승 방편을 열어 일불승 실상에 들어오게 한다고 하여 四法의 운용임을 보여준다. 원효는 범화경설 “일대인연으로 開示悟入한다”는 일승설이 一乘教 一乘果 一乘理 一乘因의 수승한

42) 李箕永, “法華宗要에 나타난 法華經觀”, 『韓國天台思想 研究』, 동국대학교 출판부, 87쪽.

43) 『한불전』 제1책 491쪽 중. “一開示中合有四義. 一者用前三爲一用, 前三乘之教即爲一乘教故. 二者將三致一, 將彼三乘之人同致一乘果故. 三者會三歸一, 會昔所說三乘因果還歸於本一乘理故. 四者破三立一, 破彼所執三乘別趣以立同歸一乘義故.”

작용과 다름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⁴⁴⁾

따라서 원효의 사마의 운행은 곧 법계의 일체 중생이[一乘人] 법신과 여래장을 평등하게 갖추고 있으므로[一乘理], 일체제불의 방편과 진실의 교법으로[一乘教], 보리를 이루는 중생의 性因과 作因에 의해 불성을 갖추어[一乘因], 실상의 보리과(곧 三身佛의 果)를 얻는다는[一乘果] 四法 相應의 운용으로 말할 수 있다.

IV. 천태와 원효 일불승 실상관의 특징(결어)

원효의 저술 속에서 천태학을 수용한 자취는 『涅槃經宗要』 약 두 곳에서 천태대사의 교판에 대한 文證을 인용하고 있고, 『大乘起信論疏』에서 『天台小止觀』의 내용이 보인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곳 『法華宗要』의 경우는 천태보다는 오히려 吉藏의 저술 영향이 더러 보인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태와 원효의 實相論의 전개과정을 보면 법화경 법설의 실상론과 유사한 전개양상을 보인다. 법화경에서는 佛이 성취한 제법 실상의 경지는 십여시로 설했는데, 이 경지는 이해하기 어려워 일불승의 경지에서 파악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처는 일체 중생을 불도에 들게 하기 위해 일대사인연으로 출세하여 불지건을 개·시·오·입한다는 것이 일불승 실상론의 대강이다.

천태대사는 『법화문구』에서 이러한 일불승 실상을 理一 教一行一人의 四一로 밝히고 그 실천체계를 大白牛車로 해석하였다. 한편, 원효는 법화법문을 일승 실상이라 전제하고, 법화경의 실상론의 추이에 따라 一乘理

44) 金英吉, 전게서, 63쪽. “네 말 수레의 넷의 일은 곧 법화 본경에서 말한 세존 일대사인연의 開教 示教 悟道 入道の 네가지 일”이라 하고 “이법의 開教, 교법의 示教, 인연법의 悟道, 일승과법예로의 入道가 격조를 맞추어 짝짝을 이룬다”고 한다.

一乘敎 一乘因 一乘果의 四一로 파악하여, 그 일승의 실행을 사법의 작용 곧 四馬의 운용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실상론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천태와 원효의 두 곳에서 모두 實相論을 네 가지 일승의 의미로 파악한다. 원효대사는 능승인에서 一乘人을 설하고, 소승법에서 一乘理 一乘敎 一乘因 一乘果의 사법을 펴는데 비해, 천태대사는 因果를 합하여 行一으로 보고 人一을 추가하여 敎一 理一의 四一을 펴고 있다. 그리고 불지견의 개시오입을 理一로 보아 四位 四智 四門 觀心으로 나누어 일불승의 행체계로 설명한다. 원효는 불지견의 開·示·開示合明의 셋으로 보아 일불승 행체계를 四法の 작용으로 보았다.

둘째, 일체 중생과 삼승이 일불승도에 들어올 수 있는 근본 근거를 천태대사와 원효대사 모두 佛性과 如來藏사상에서 찾고 있다. 천태대사는 實相卽如來藏으로, 원효대사는 法界 佛性과 如來藏 평등 무차별에서 찾고 있다. 다만 원효는 법계의 평등을, 천태는 十法界互具로 파악한다. 특히 천태의 三因佛性사상이 원효에서 一乘因에서 性因(正因佛性) 작인(了因佛性 緣因佛性)에 보인다는 점은 특기할 만 하다.

셋째, 일불승의 현실적 실천성이 강조되고 있다. 천태대사는 ‘實相卽如來藏’ ‘實相卽第一義空’으로(『법화현의』) 확대하여 觀心の 실천체계와 닿아 있고, 특히 대백우거의 비유로 일불승 실천체계를 圓頓止觀으로 승화시켰다. 한편 원효는 四一의 開示에서 四馬의 상호 상응성으로 통일된 일불승 실천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천태와 원효는 법화경 일불승 실상론에 있어 상당히 유사한 전개를 보이고 있고, 이를 四一과 四法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일불승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일불승의 행체계에서도 대백우거와 사마의 운용이라는 특징적인 비유를 통하여 일불승도를 밝히고 있어, 두 분의 법화경 해석이 각각의 독보적인 법화경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식과 체계에 있어

매우 상통하는 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제법실상(諸法實相) The Reality of All Existence, 일불승(一佛乘) one Buddha vehicle, 십여시(十如是) The essential qualities,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 The one great work of a Buddha, 사일(四一, 二一 教一行一人一) The four “one”(agreement of a principle, teaching, acting and a person), 사법(四法, 一乘理 一乘教 一乘因 一乘果) The groups of four dharma(one vehicle principle, one vehicle teaching, one vehicle reason and one vehicle result), 대백우거(大白牛車) The great bullock-cart(in the parable of the burning house), 사마(四馬) Four kinds of horses.

The four "one" of T'ien-ta'i and the four dharma groups of Wonhyo

Lee, Ki-Woon

The original meaning of Buddhism from Lotus sūtra is the idea of one Buddha vehicle and the Reality of All Existence. And the organized summary for them in Lotus sūtra was completed by the ambassador, T'ien-ta'i. In his three books, he summarized the meaning of religion about one Buddha vehicle as a connection and he considered the procedures to implement as a practice. That is why the study of T'ien-ta'i has been regarded as a standard to understand Lotus sūtra so far. On the other hand, Wonhyo defined the main idea of Lotus sūtra as "The Reality of one Buddha vehicle" and showed the fundamental principal at 『Bubhwajongyeo』.

But both of them have each of educational knowledge and comparison to understand the real meaning of the view of one Buddha vehicle. T'ien-ta'i interpreted the essential qualities, the one great work of a Buddha and the attain of Buddha which are the basic Buddhist scriptures as the four "one" which is the agreement of a principle, teaching, acting and a person. And he compared this to the great bullock-cart(in the parable of the burning house).

On the other hand, Wonhyo defined the law to be into the attain of Buddha as "the law to take" for this part of Buddhist scriptures

and classified the person who implements this law as a person who takes the religious law. And also he divided "the law to take" into the groups of four dharma which is one vehicle principle, one vehicle teaching, one vehicle reason and one vehicle result and interpreted this as comparing four kinds of horses.

Although we might think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great bullock-cart and four kinds of horses, these have the same purpose to interpret the Buddhist scriptures of one Buddha vehicle and the meaning of the Reality of All Existence and also to take these as a practice. Therefore the comparison of these two persons could be an important indicator to understand of the view of one Buddha vehicle from Lotus sūtra.